1970년도...

질병발생상황과 그대책

이창구
(농촌진흥정부관리과장)

1. 머리말

해가 바뀌는 전환절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지난 1년을 경력하여 반성하고 자임세를 갖춘 설계를 구미는 것이 함께 미룬다는 가정, 바람직한 생활 투자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의 현황이 더욱더 뛰어차차 따라 차차 구조가 커지고기업화됨으로써 사양관리가 솔로 이념강도의 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

그러나 전병관리원에서는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를 빠르게 나가지 못한 상태로 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으며 지난 년도 동안에도 질병문제로 인하여 허나한 어려움과 물의를 일으켰다.

해마다 피해가 늘고있는 백혈병과 마멸병,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농렇.ali병, 그리고 발생빈도가 점차로 늘어가고 있는 마이크로프리마병, 포도상균중, 아스파킬리스증, 목시중증등 지난 1년 동안 각각야생연구소와 벌업된 가점들은 대한

병피경질결과를 토대로 70년도의 중요한 질병들 을 개발하여 살펴보고 그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질병발생상황

가점들이 의료사고가 정확히 양계농가의 질병발생상황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정도의 추세는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년도 10월 말까지 처리된 가점들 중 전염성 질병이 전체 의료사고의 63%로서 반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염성질병(非傳染性疾病)은 주로 관계의 질병으로서 그 피해가 적합되어 있으나 전염성질병은 개체에 그치지 않고 전전계에 전염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양계장에까지 연금됨으로서 기행급 수적인 피해를 입게된다.

한편 제철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9년 11월부터 70년 10월 말까지 전체의료사고 889건 중 야름한한 의료사고가 전체 년중 의료사고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단점으로 야름한한 부모에 의한 성우가기 때문에 사양증수가 증가되며 연행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른한편으로 야름한한 비의부의 손도가 병원체의 중첩과 겪어 적합한 질병이라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이염질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포도상균증(바라리병), 목시중증, 목시결린증 등으로 주로 가장증(원증), 세균 금방이로 인한 것들이서 바라리스는 의제에서 온도가 높음수록 생존기간이 줄어드나 세균이나 금방이 기생증증은 도시 완성하게 중 심함으로서 점적적으로 독한 질병발생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69년도와 70년도의 전염성질병 발생상황을 비
표 1  1970년도 가장 많은 질병순위 (10월말 현재)

<table>
<thead>
<tr>
<th>진단명</th>
<th>성별</th>
<th>연</th>
<th>검사건수</th>
<th>%</th>
</tr>
</thead>
<tbody>
<tr>
<td>소화기질환</td>
<td>장 양</td>
<td>남</td>
<td>18</td>
<td>2.2</td>
</tr>
<tr>
<td></td>
<td>하리 턱</td>
<td>남</td>
<td>9</td>
<td>1.1</td>
</tr>
<tr>
<td></td>
<td>기 타</td>
<td>남</td>
<td>14</td>
<td>1.6</td>
</tr>
<tr>
<td></td>
<td>제</td>
<td>남</td>
<td>41</td>
<td>4.9</td>
</tr>
<tr>
<td>비뇨기질환</td>
<td>노사점막증</td>
<td>남</td>
<td>24</td>
<td>2.9</td>
</tr>
<tr>
<td></td>
<td>수관관대결</td>
<td>남</td>
<td>8</td>
<td>1.0</td>
</tr>
<tr>
<td></td>
<td>기 타</td>
<td>남</td>
<td>40</td>
<td>4.9</td>
</tr>
<tr>
<td></td>
<td>제</td>
<td>남</td>
<td>72</td>
<td>8.8</td>
</tr>
<tr>
<td>생령성질환</td>
<td>심방실중</td>
<td>남</td>
<td>10</td>
<td>1.2</td>
</tr>
<tr>
<td></td>
<td>비타민A결핍증</td>
<td>남</td>
<td>6</td>
<td>0.7</td>
</tr>
<tr>
<td></td>
<td>기 타</td>
<td>남</td>
<td>8</td>
<td>0.9</td>
</tr>
<tr>
<td></td>
<td>제</td>
<td>남</td>
<td>24</td>
<td>2.9</td>
</tr>
<tr>
<td>기타질환</td>
<td>뇌막염</td>
<td>남</td>
<td>19</td>
<td>2.2</td>
</tr>
<tr>
<td></td>
<td>카니발리증</td>
<td>남</td>
<td>17</td>
<td>2.1</td>
</tr>
<tr>
<td></td>
<td>사양실외</td>
<td>남</td>
<td>31</td>
<td>3.7</td>
</tr>
<tr>
<td></td>
<td>기 타</td>
<td>남</td>
<td>47</td>
<td>5.8</td>
</tr>
<tr>
<td></td>
<td>비</td>
<td>남</td>
<td>54</td>
<td>6.5</td>
</tr>
<tr>
<td></td>
<td>제</td>
<td>남</td>
<td>168</td>
<td>20.3</td>
</tr>
<tr>
<td>총계</td>
<td>총</td>
<td>남</td>
<td>355</td>
<td>37.0</td>
</tr>
<tr>
<td>총계</td>
<td>총</td>
<td>남</td>
<td>827</td>
<td>100</td>
</tr>
</tbody>
</table>

교대보면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가추세에 있는 질병은 포도상구균증, 백혈병, 령시디озв중, 아스피린스증 등이며, 반대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추드리병, 뇌결핵증, 제우 등이었다.

표 2. 중요한 전염병의 질병별 전염병량 (69.11~70.10)

<table>
<thead>
<tr>
<th>병명</th>
<th>제국</th>
<th>본</th>
<th>여중</th>
<th>가중</th>
<th>저중</th>
<th>제</th>
</tr>
</thead>
<tbody>
<tr>
<td>마이크로포리자병</td>
<td>10</td>
<td>31</td>
<td>9</td>
<td>8</td>
<td>58</td>
<td></td>
</tr>
<tr>
<td>포도상구균증</td>
<td>10</td>
<td>19</td>
<td>9</td>
<td>7</td>
<td>45</td>
<td></td>
</tr>
<tr>
<td>주력리병</td>
<td>2</td>
<td>2</td>
<td>1</td>
<td>1</td>
<td>6</td>
<td></td>
</tr>
<tr>
<td>뇌결핵증</td>
<td>30</td>
<td>40</td>
<td>5</td>
<td>4</td>
<td>79</td>
<td></td>
</tr>
<tr>
<td>제우증</td>
<td>-</td>
<td>3</td>
<td>4</td>
<td>1</td>
<td>8</td>
<td></td>
</tr>
<tr>
<td>마력병</td>
<td>15</td>
<td>32</td>
<td>20</td>
<td>4</td>
<td>71</td>
<td></td>
</tr>
<tr>
<td>백혈병</td>
<td>35</td>
<td>58</td>
<td>40</td>
<td>29</td>
<td>162</td>
<td></td>
</tr>
<tr>
<td>령시디озв중</td>
<td>11</td>
<td>22</td>
<td>27</td>
<td>4</td>
<td>64</td>
<td></td>
</tr>
<tr>
<td>뇌결핵증</td>
<td>-</td>
<td>7</td>
<td>7</td>
<td>7</td>
<td>9</td>
<td></td>
</tr>
<tr>
<td>제우증</td>
<td>3</td>
<td>7</td>
<td>7</td>
<td>2</td>
<td>19</td>
<td></td>
</tr>
<tr>
<td>아스피린스증</td>
<td>1</td>
<td>1</td>
<td>2</td>
<td>-</td>
<td>4</td>
<td></td>
</tr>
<tr>
<td>총계</td>
<td>117</td>
<td>222</td>
<td>126</td>
<td>60</td>
<td>525</td>
<td></td>
</tr>
</tbody>
</table>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는 질병들은 백혈병은 제외하고는 저항성이 강한 병원체에 의한 것들로서 보통의 소독제등에 의하여 사멸되지 않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 세균성 질병

세균성 질병은 가장 반복히 발생하고 있는 병은 마이코프라마스마병이다. 이 병은 마이코프라마스마병(Mycoplasma gallisepticum) 단독감염인 경우가 가장 많으나, 다른 병원체와의 혼합감염을 포함하면서 발병이 현저하게 다가게 된다.

이병은 적절한 방사선적 치료를 취하지 않는 경우, 동물의 사망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병은 대한 경계치로 진단이 없으나, 가까운 경계치가 높거나, 환경이 좋지 않으며, 다른 병원체와의 혼합감염을 나타낼 경우,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병에 대한 전염성이 개발되어 71년부터는 부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은 포도상구균에 의한 마마타병으로 주로 공주와 조선주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바탈리 사육장은 아니나 폐지에서라도 번변의 발생라고 하였다.

또한 이병원체에 의하여 관절염을 일으키는 양도 있다.

한편 주택병인 마이코프라마스마병과 마찬가지로 진단을 통해서 진단이 되며, 특히 동물체의 적절한 검사도가 가장 효율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증례에서 매년 두차례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거나, 실시할 때도 적절하지 않아서 명확히 진단된 경우는 많지 않다.

이렇듯 극소수 감염된 것으로부터 발병이 되는 학습적 방식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병에 대한 인식이 크기 때문에 감염된 발병이 많아 향후에도 백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행

이병은 대개의 경우 비생물적인 예방관리로 오는 경우가 많으며, 암호체계의 전염이 많다.

이는 외래인의 영향과, 퇴적된 방아리의 급격한 수요의 증가로 동물의 전염성은 체면의 소독이 가능한 시간적 요소를 갖지 못하고, 입말목으로서 출생된 경우이며, 합병증이 악화되어야 오염되는 경우이다.

장바위바위줄은 동물성, 불화질, 사료가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오염된 타고나 재료를 먹는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위생가 중요하다. 본질적

한편 이병에 감염된 것은 그만을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는 것은 다른 이병에 방지된다는 것에 적절한 과학적 기반이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예방관리법의 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바이러스성 질병

류프스병은 해마다 많이 발생되는 질병이지만, 70년도처럼 이병에 의한 묻지가 있던 해도 드물었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년대에는 19년도에 비하여 의료건수의 점포에 불구하고 그량의 문건이 있던 것은 19년과는 비교적 격렬한 관계없이, 70년대는 70년도부터 8절까지 1개월동안에 전부발생은 75% 이상의 전염성,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했을 경우가 많이 많음으로서, 예방과 치료의 복합률로 더욱 큰 혜택을 입혀하였다.

앞으로는 점차문과 같은 사례를 거듭하는 이병에 대한 방역에 더욱 철저하도록 해야했다.

최근 류프스병 코만되지 예방접종이 가능함에 따라, 이병에 대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예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의료에
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들이 우리에게도 즉 합당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방접종 후 반영이 형성되는데는 여러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그중에서도 각개체의 전염성과 모체 이행량 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모체이행량체는 모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장 애동력이 성 até에게 전달되므로 모체의 애동 능력의 높고 낮음에 비례하여 성 até에 전해지며, 부화적후 가장 높은 역류를 유지를 하며, 날이 갈수록 차차 소실되어 마침내는 빛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로 방어지게 된다.

한편, 모체이행량체의 능력이 낮은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하였음에도 예방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고 이행량 체능력의 근본적 저하만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므로 예방접종시기는 모체이행량체의 역 가가 얇음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적당한 예방접종시기에 많은 수의 애들이 일시에 도달되게 위해서는 첫째, 일령이 길고 예방접종일이 같은 종체에서 나온 성 até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므로 모체의 항체역가가 비슷하게 되고 여가서 나온 성 até들은 비슷 비슷한 항체의 역 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가에게 의한 예방 접종결과 예방접종후에 티호트로부터 힘을 뺀다 항체역가 측정은 의외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당한 예방접종시기에 예방 접종후의 효과도 알 수 있고 또 다음 2차 접종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두차도말의 경우 성 até를 구입하는 중 계장에 부자치 없는 한 반복한 두차 접종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예방접종을 하였는데도 뮤켓순병이 발생하였다고 의아해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그 피해 경도에 따라 앞에 말한바와 같이 접종시기를 잘못 선택하였거나 적당한 시기에 하였음지라도 접종종
70년도 질병발생 상황

을 하지 않으면서 연유되는 여가 많다.

백혈병 및 마약병

이병들에 대해서는 자극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다양한 질병(야생형, 항암체)으로 발생해 왔고, 신종의 암으로 대양양이나, 치료체가 개발되지 못하였다.

백혈병의 주된 잠재원인은 난세대전염(염증반응)이며 감염된 백혈구나 선염으로부터, 진단으로 난세대전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약병은 백혈병과는 달리 난세대전염은 되지 않으나, 강한 반대로, 감염체로부터 적절 휴게를 통해 진단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병이 대양양이라면, 그 원인은 병원체이 구조만 보면 알 수 있게 되어 의뢰 전의 진단법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사망하고 있는 백혈병은 대부분 외국에서 도입된 중성갑으로부터 나온 백혈병이 많다.

외국에서는 중대성양양이 우리나라보다는 흔히 일어난 편이어서도, 도입된 특이병의 비교적 감염체가 적은 편이나, 사망한 경우, 진단으로서 진단개시가 늦어지고 여기서 나온 백혈병은 백혈병의 일부에 해당한다.

그리므로 가장 전면한 방법은 최근에 도입된 중성감염에 대한 의뢰를 통한 진단하는 것이 좋다.

이병은 국가에게 잘 인식되지 않기로 심신성 발병률이 있다.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이병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리어져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보고받는 없으나, 이병은 광범위한 범위를 상당히 많은 발생이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보고가 없다. 한편, 신체질에서 과도히 조절의 상황에 지하된 결과로 인하여, 1~2개월이 소요됨으로 상당한 피력을 잃는 것이다.

이병은 애매한 것을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여름철에 뜨고 자주 즙아주는 등 발병의 경향이 없기 때문에, 농축이 나타나는 빨은 신속히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대책의 선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질병이 발생하였는데도 자기나름대로 무모한 판단을 내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그것은 더욱 하나의 체계적 판단을 투약하다가 발전된 후 예방 실험을 제안하게 되므로써 아무런 흔적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몇몇에서 질병진단이나 대책을 세우는데 사양의 가독가 도움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하고 상세한 사양일기를 쓰는 것도 권장하고 싶다.

다음으로 질병관리는 당계할 어린 단순 분야 보다는 특수한 학문적 유행성에 필요로 한다.

몇몇 대규모 약계장에서는 질병관리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으나 막강한 규모로 약계를 하면서도 전문적인 질병관리에 없이 경영해가는 약계장도 허다하다.

끝으로 각 제약회사의 약품점매원들의 영향이다.

이들은 약계가 적절적으로 작용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활약되어 도움이 된다.

문제는 질병담담의 경우에 그들만 나름대로 작기 다른 진단을 내려준으로서 약계가가 받는 곤란이다.

느린이나 모두 좀 더 신중한 태도로써 일해 주기를 바라고 싶다.

3. 맺는 말

그러나 문제는 어렵게 해야 좋은지 모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초보적인 점들이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사항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분야의 이론기능을 응용할지라도 질병문

제로 이상의 의학의 약물은 없으면 백일의 실이다.

세계에는 이러한 초보적인 단계를 극복하고 의학분야에 있어서 기술적인 도약이 해고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